

가계·기업 빚 3400조...GDP 대비 219.4%

한은 “GDP 대비 민간신용 여전히 높아”

기업 3곳 중 1곳 ‘좀비 기업’...중소기업은 절반

올 1분기 국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빚이 3400조에 달했다. 경제 주체들의 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가계부채에 기업부채까지 더한 민간부채 규모는 전체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한은은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의 합) 비율은 219.4%로 전분기보다 0.1% 포인트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20년 1분기 200.2%로 처음으로 200%

를 돌파한 후 줄곧 200% 수준을 유지해 왔다. 주체별로는 가계가 104.5%로 전분기(105.8%)보다 1.3%포인트 하락했고, 기업이 114.9%로 전분기(113.7%)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등 가계·기업·정부가 한해 번 돈 모두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는 얘기다. 1분기 가계, 기업 부채를 합한 규모는 3468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었다. 이는 전분기(7.6%)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7.8%) 증가율보다 감소한 6.3%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7% 늘어 전분기(7.1%)보다 증가세가 소폭

뒀다. 저분가능소득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168.9%로 전년말 대비 2.2%포인트 하락하는 등 채무상환 부담이 줄었다. 소득은 늘고 부채 증가율은 낮아진 영향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5.0%로 지난해 말(45.6%)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주가상승 등에 따른 금융자산 증가의 영향이다.

기업부채는 160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늘어났다. 기업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 및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 기업 등 2610개 기업의 부채 비율은 2020년 말 77.2%에서 지난해 말 80.1%로 2.9%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54.6%였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기업 비중은 15.3%에서 14.6%로 하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12.8%, 16.5%였다. 중소기업은 부채비율 자체는 대기업 보다 낮지만 규모 대비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한 취약기업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5.5%로 대기업이 22.5%, 중소기업이 48.4%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 보다 높아지면서 다소 완화 된 반면 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남도 5월까지 수출액 208억 달러

2019년 5월 대비 49.4% 늘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전남도는 올 5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한 208억 달러로 5월 누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5월과 비교해도 49.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석유화학제품과 석유제품이 주도했다. 석유화학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76억 달러, 석유제품은 105.1% 늘어난 73억 달러를 수출했다.

농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5%가 늘어난 2억5000만 달러이다. 김 9800만 달러(30.4% ↑), 전복 2000만 달러(52.2% ↑), 오리알 1500만 달러(53.4% ↑), 분유 1400만 달러(9.1% ↑)를 수출해 증가세를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44억 달러(2.7%), 미국 16억 달러(62.4%), 호주 16억 달러(380.2%), 베트남 14억 달러(100.0%), 일본 13억 달러(16.5%) 순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

행으로 정착된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 지속 추진과 코로나19 완화로 3월 이후 재개된 미국 애너하임 식품박람회,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 LPG 연계 우수농수산물 홍보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함께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자치단체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 등 7개국으로 확대하고, 우수농수산물품의 코스트코 입점과 8개국 21개소의 전남 상설판매장 운영 등도 한 몫했다.

미국 코스트코 입점은 고희 예민 식품 유자주스, 여수 아라움 오징어 스낵 등 2개소이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 수출피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확대, 특별보증을 통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권영인 기자

고령화·주택 매매 절벽에 국내 인구가동 47년만에 최저

인구 고령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난달 국내 인구가동이 1975년 이후 4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5월 국내 인구가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3만4000명) 감소했다. 인구 이동자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75년 이후 47년 만에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동월 기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다. 국내 이동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내림세를 지속 중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인구가동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인구 이동률이 높은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이동률이 낮은 5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4월 주택 매매량을 보면 11만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7%(8만3000건) 감소한 영향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2%, 시도 간 이동자는 33.8%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8.4%, 1.2%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가동률은 12.0%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3719명), 인천(2203명), 충남(1151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3082명), 경남(-1605명), 대구(-1399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했다.



5000억대로 커진 막걸리, MZ세대에 인기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막걸리 소비가 늘어나면서 막걸리가 2대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 3000억원대에 그쳤던 국내 막걸리 소매시장 규모는 2019년 45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aT는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가 5000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2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막걸리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장사 잘한’ 1000대 기업, 지난해 이익 역대 최고...한전 꼴찌

삼성전자, 1000대 기업 영업이익 22% 차지

국내 매출 1000대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한 곳은 28곳으로 1년 새 10곳 많아졌다. 반면 2020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3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두 항목 모두 ‘꼴찌’ 불명예를 안았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2021년 국내 매출 1000대 상장사 영업손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000대 상장사는 각 년도 매출,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지난해 국내 매출 1000대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145조5249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93조9149억원보다 51조원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1000대

기업 영업이익 규모가 최근 1년 새 55% 증폭 뒀다. 1000대 기업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의미하는 영업이익률도 2019년 5.2%, 2020년 6.3%에서 작년에는 8.4%로 상승했다.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은 2018년 기록한 10.7%다.

1000대 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01년 당시만 해도 36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2004년에는 70조원으로 높아지고, 2010년에는 100조원에 근접했다. 이후 2017년(129조원)과 2018년(138조원)에는 100조원에 근접했다. 그러다 2019년(78조원)과 2020년(93조원)에는 다시 100조원 미만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50조원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여기에 영업이익 명치가 1조가 넘는 기업도 늘었다. 이중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 규

모는 31조9931억원(연결기준 51조633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2020년 20조5189억원보다 1년 새 11조원 넘게 상승했다. 영업이익 증가율만 해도 55.9%나 됐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7조6374억원(2020년 4조5458억원)→2021년 12조1833억원), HMM 6조4008억원(9559억→7조3568억), 포스코홀딩스 5조5144억원(1조1351억→6조6495억), 현대제철 2조2581억원(416억→2조2997억), LG화학 1조9047억원(1조1144억→3조191억), 기아 1조6500억원(1조1691억→2조8192억), 대한항공 1조2261억원(2383억→1조4644억) 순으로 영업이익 명치가 최근 1년 새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전은 2020년 톱3에서 지난해 꼴찌로 곤두박질했다. 2020년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 2조7851억원, 당기순이익 1조9514억원으로 1000대 기업 중 랭킹 톱3을 꿰찼다. 하지만 1년 새 영업손실 규모액은 7조4255억원, 당기적자액은 5조6077억원으로 1000대 기업 중 가장 낮았다.

/권영인 기자

은행들, 전세대출 금리부터 낮춘다

5대銀, 금리 인하 검토...인하 확산 전망

은행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에 발맞춰 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8월 ‘전세대란’이 예상되는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확산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감소세에도 전세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132조6949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132조4582억원) 대비 2367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세대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자산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신용대출 등과 달리 실수요자가 중심이다. 게다가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갭신 물량의 전셋값이 주변 시세에 맞춰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전월세 바탕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임대차차기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임대금리차를 낮추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인하부터 나선 상황이다.

은행들은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금리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월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다.

/뉴시스

김포-하네다 하늘길 29일부터 재개

코로나19로 중단한지 2년3개월만...주8회 운항

한일 양국 수도의 관공공항인 김포-하네다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지 2년3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전날 저녁 우리 정부와 일본이 화상회의를 통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재개되는 김포-하네다 노선에 한일 국적 항공사 4곳이 주 8회 운항을 시작한다.

대한항공(수·토)과 아시아나항공(수·토), 일본항공(목·일), 전일본공수(월·금)가 각각 주2회씩 운항하게 된다. 또한 양국은 운항 횟수도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7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김포-하네다 노선은 지난 2003년에 운항을 개시한 이후 대표적인 한·일간 비즈니스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해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항공노선이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년 넘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광양제철, 세계 인정의 날 기념 산업부장관상 수상

광양제철소가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정 제도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시험인증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매년 세계 인정의 날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높은 수준의 적합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건설·교량시공·철구조물 가공 등의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공인시험실적서 발행 건수는 국내 1500여 건, 국외 1100여 건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광양제철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7일 이숙복 품질기술부장관이 대표해 상을 수상했다.

/광양제철소 기자

광주전남중기청장, 스마트공장 도입 및 인력양성에 앞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내 스마트공장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1일 중진공 호남연수원에서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진공 호남연수원서 중소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외에 탄소중립형 ‘광주 스마트공장 배움터’와 스마트제조 연수과정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 단체장과 특성화고 교사들이 참여했다. 협의회에 앞서 업종별 스마트공장 도입과 실패사례를 공유하는 특강을 가졌으며,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생들의 연수

원 활용과 제조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천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는 급변 내로 스마트공장 3관개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영인 기자

한전KDN ‘경영소통회’ 직원들과 쌍방향 소통

한국전력(한전)의 전력·정보 기술부문 자회사인 한전KDN이 지난 21일 전남 나주시 본사 및 기암출에서 ‘2022년 제2차 경영소통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경영소통회’는 회사 경영이나 현안과 관련, 쌍방향 소통을 통한 현장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경영소통회는 ▲신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 ▲전략그룹사 비상경영 ▲충전건비와 복제 제도 등 임직원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했다.

/주기호 기자